



SARANG

뉴스 02

도시재생, 쇠퇴하는 도시 회생시켰을까?
이달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 설치로 건축사 귀하신몸

뉴스 03

세계 디자인도시 토대 수립한 구니요시씨에 듣는다
요코하마는 어떤 도시

시론 04

노경수 교수 _ 도시계획위원 회의 풍경
알기쉬운 도시계획법 특강 _ 신재욱 광주시 친수공간과장

종합 05

사랑에서 _ 적정 건축설계기간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건축사 만평 _ 쳇 gpt 답변...

전남 지역 뉴스 06-07

순천대 건축학부 사토 세이지 교수 초청 강연회
전남 공공건축 관계자 역량 업그레이드

광주 지역 뉴스 08-09

올해 광주건축·도시문제제 9월 12일 팡파르
광주건축상 받은 우수 건축물 탐방합니다

전북 지역 뉴스 10-11

백제 고도 역사성과 편의성 도시계획에 담는다
전북대 마닐라 코리아타운에도 K-TOWN 건립 추진

오피니언 12

사랑&시선 _ 건축사, 모자람도 넘치지도 않길
한 편의 시 _ 유월의 시간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6.163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쇠퇴하는 도시 회생시켰을까?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전국에서 도시재생법 문제인 정부 보존위주로 5년간 560곳 추진 사업완료 후 재개발에 쏠려 다시 철거되는 곳도 윤석열 정부 개발 치중 명확한 사업 원칙 정립을

6월 4일은 도시재생법이 제정 10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과 도시가 성장을 멈추어버리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줄 처방전으로 제시된 도시재생에 대한 든든한 법적 토대가 되어왔다.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 1980년대 이후 외연 확장에 활발했다.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 구도심의 쇠퇴는 가속화됐다. 오래된 도시의 침체되고, 확장에만 골몰한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낡고 오래된 방치된 건물이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줄게 탈바꿈하고, 환경쓰레기로 오염된 강이 살아나 도시의 동맥이 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는 세계 모든 도시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무조건 확장하고 새로짓는 개발 논리에 빠지지 않고 재생의 가치와 의미에 주목한 성과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구조의 변화, 즉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킨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당시 재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부산이 전진지였다.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들이 2011년 일명 '커뮤니티 뉴딜'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후기에 도시재생이 큰 이슈로 등장했던 배경이다. 물론 이들이 추진했던 재생의 바탕은 '재개발'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국화 된 것을 문제인 정부 때다. 문제인 정부는 출범 직후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실행에 나섰다. 5년 동안 해마다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목표는 전국 500개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이었다. 매년 100여개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그림이었다. 예산면에서도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



문제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정책수정을 통해 새판짜기로 추진된다. 사진은 광주도시재생사업에서 처음 완료된 서구 창작농성골센터 건물. 광주도시재생센터 제공

다. 기존에 1500억원대였던 한해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했으니 말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560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다. 도시재생유형에는 활성화 사업, 혁신지구, 인정지구, 특별재생지구 등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정된 19곳은 국비 지원이 종료됐다. 올해는 120곳에서 국비 지원이 끝난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4년 선도지역으로 산수동 푸른마을 공동체센터와 미로센터 등 3개소가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20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마중물 사업격인 서구 창작 농성골 등 2개가 완료됐고, 전남은 52건의 사업 중에서 선도사업이었던 6~7개 사업이 종료됐다. 전북의 사업지는 47곳이다. 완료된 사업 대부분 선도사업격으로 이를 토대로 도시 재생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개발 사업장에서 진척도는 전체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는 편이다. 상당수 기획단계에서 부지 확보없이 착수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땅값 상승으로 거점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구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송진 광주도시재생센터 대표는 "뉴딜사업의 경우 3년차까지는 부지 확보없이 주민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땅값이 상승해 거점시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사업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완료된 사업들은 주로 보존 중심에 목표를 두다보니 벽화, 센터 등 거점 시설 건립, 폐쇄회로 설치, 담장 정비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거점시설은 도시 재생사업에 주요 성과물로 꼽히는데,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이 종

료되자마자 폐관되거나 방치되는 곳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 재생사업을 마무리한 곳에서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도해서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양동 어진마을의 경우 새 들마을사업으로 5년만에 걸친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 하자마자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광주 달의마을 상황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방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공공주도, 보존위주에서 민간 주도, 개발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문제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원형 보존에 치우쳐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그동안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노후 도시 정비사업을 추가했다. 명칭도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 정책과, 도시재생 역랑과는 도시정비 경제과 등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도시 재생사업에서 전면 철거 재개발을 허용하고,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했다.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돈 가치 투기 자본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너무 낙후되어 현실적으로 주거 여건 개선이 어려운 지역에서 무리하게 보존을 중심으로한 도시재생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건축 구조기술사의 경우 자격 취득자수가 제한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건축사 자격 취득자수는 2만 6124명이고 건축 구조기술사는 광주전남 20여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누적 자격 취득자수는 12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안전센터 설치 취지가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건축물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광역도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렇기에 시군단위의 경우 인력 확보가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여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 설치로 건축사 귀하신뎌

전남지자체 10곳, 전북도 2곳 등 의무 운영 전문 인력 계약식으로 지자체 확보에 어려움

이달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사 등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개정으로 이달 1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지자체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기존 광역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 더해 건축 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30% 이내인 인구 50만명 미만의 기초 자치단체가 추가

된다. 지역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화재 등 기존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기술인) 등 각 1명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10곳(여수,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강진, 완도, 진도, 신안)이 전북 지역에서는 2곳(남원, 완주)이 해당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동구와 서구가 설치대상이나 이미 설치를 완료했다. 추가 설치 지역은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군수를 고려해 2개 이상 시군구와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 재생, 도시만의 차별성...인구 감소 대응 공공건물 복합화 필요"

새로운 것과 전통 균형이 도시 매력 지름길
日 요코하마 디자인 정책 설계한 구니요시씨 인터뷰

일본 요코하마는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통한다. 불과 50년 전에는 도쿄의 변방에 불과했던 요코하마의 변신은 세계 각국 도시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여기에는 1971년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담당팀 신설 연구원으로 입사해 40년간 '사람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에 전념해온 구니요시 나오유키(74) 전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인실장이 있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 도시 디자인 정책이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승진도 포기한 채 디자인팀을 지켜낸 구니요시씨 덕분이었다.

민선 6기에 2년간 광주시도시디자인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구니요시씨는 우리나라의 도시 디자인과 재생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재도 인천, 의정부시의 도시 재생과 디자인 정책에 직간접으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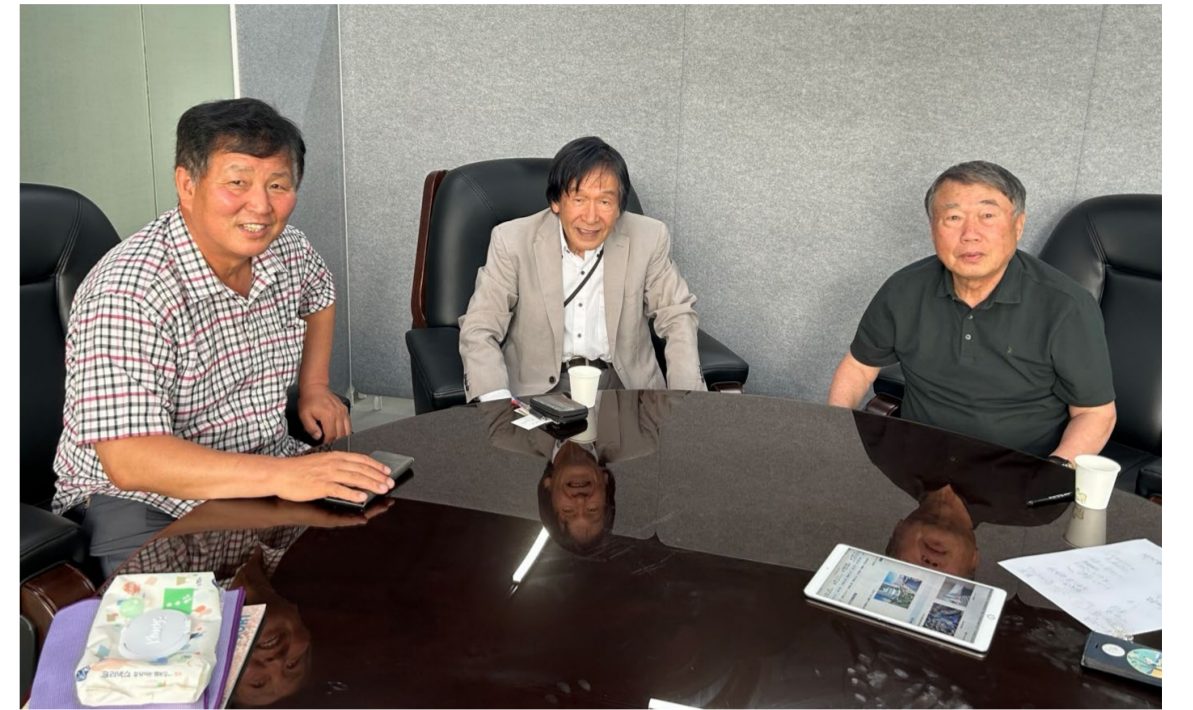
지난 6월 2일 인천에서 열린 한일 도시디자인포럼에 참석한 구니요시씨는 포럼 일정을 모두 마치고,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건축문화사랑은 지난 5일 구니요시씨를 만나 도시디자인에 대한 그의 철학과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이 인터뷰에는 전 광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이었던 강권씨가 배석, 통역을 해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광주에 왔다는 구니요시씨는 "지난 제2회 광주비엔날레때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고, 올 때마다 광주가 멋진 도시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갖고 있는 문화도시임을 느꼈다"면서 "시민들에 의해 키워지고 각국의 예술가들이 함께 발전시키는 문화적 토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니요시씨는 광주 문화산업과 문화활동의 접목에 '비엔날레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창설을 앞두고 도시 발전 벤치마킹차원에서 지난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했던 그는 이후에도 광주비엔날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광주 방문에서도 무각사, 앙림동 등 비엔날레 전시 장소를 찾아 전시 작품을 촬영하는 등 꼼꼼하게 둘러봤다. 도시 디자인 전문가인 그가 미술프로젝트에 깊은 애정을 갖는 것은 도시를 활기있게 만드는 최고 요소로 미술이벤트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도시디자인 실장 당시 요코하마시가 지난 2004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지구의 야경. 요코하마시청 제공



광주를 방문한 구니요시 나오유키(사진 중앙)씨가 지난 5일 광주 시내 공간에서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성공사례와 광주의 디자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강권 전 광주시 도시디자인과장, 오른쪽은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한 조용준 전 조선대 명예교수

년 '창조도시'를 선언할 때 가장 핵심 프로젝트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였다.

광주비엔날레로 말문을 연 구니요시씨는 그의 도시 디자인 철학과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구니요시씨는 IT기기 활용이 익숙치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하고 있는 아이패드를 능수능란하게 조작하며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찾아 설명해주는 열의를 보였다.

"도시디자인은 도시에 가치를 높여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게 하는 것은 도시를 즐기게 하는 것인데, 이런 조건들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도시디자인은 2~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 분야 전문가들은 업무 위치가 바뀌어지지 않아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니요시씨는 1971년 도시디자인 팀을 만들었고, 15년이 지나 성과가 나왔고, 시장은 10년만에 교체됐지만 팀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시장들도 도시디자인 정책을 계승해나갔다. 구니요시씨가 요코하마 시청에서 근무했던 40년 동안 5명의 시장이 교체됐지만, 그는 '바람을 타지않고' 도시디자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늘날 요코하마가 디자인도시의 기틀을 놓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0년 전 요코하마시가 도시 디자인을 적극 추진한 배경에는 도쿄의 위성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차별화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요코하만의 창조적인 색깔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디자인실은 사람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자산과 지역의 지형이나 식생들의 특징을 소중히 하고, 오픈 스페이스나 녹지를 풍부하게 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 생활 속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데 매달려왔다. 이같은 지속적 도시공간의 디자인 실현이 요코하마를 '사람의 도시'로 불리우게 했다.

구니요시씨는 "도시 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만의 차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도시의 매력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시대 도시디자인 방향에서도 일본의 흐름을 소개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공공 시설이 목적 대로만 쓰게 되면 시대에 맞지 않으니 시설구조도 복합화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니요시씨는 "도서관만 있고 그 공간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서 "도서관 안에 음악연습장, 회의장, 심포지엄 공간 등을 만들어 멀티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이 건축물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큐슈 사가현 다카오시 도서관이 문화복합시설로 변하고, 도쿄은행 도서관이 민간 참여를 통해 스타벅스 입점을 통한 활성화 사례를 거론했다.

구니요시씨는 지난 2020년 제8대 요코하마 신시청 이전에 따른 구시청 활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요코하마시는 지난 2012년 시의회에 신청사 개발 심의를 위한 포럼 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8년 만에 간나이 지역에서 1km 떨어진 도오리 미나미지구 지역에 신축 이전했다. 155m(31층) 높이로 신축된 신청사 저층부(1~3층)는 공공용도와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5층부터 의회와 행정이 이용하고 있다. 청사 이전으로 간나이 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도심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청사 부지를 70년간 민간에 임대해줬다. 실제 공모 과정을 통해 구시청 부지 활용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리조트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호시노 리조트사이다. 호시노 리조트사는 설계 공모 조건으로 시청 건물을 그대로 남겨놓는 대신 시의회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상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면사무소나 계림동 광주시청사가 민간에 매각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광주의 경우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특히 "광주에서 무등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구니요시씨는 "무등산은 광주의 가장 큰 자산이고, 무등산 인근인 광주호 등에서 이벤트가 자주 있어야만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풍경

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는 개발행위 허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과의 여러 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충분한 기성금을 받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회의장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지자체 도시계획과장인 간사가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에 관한 성원보고를 하고,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는 시작된다. 간사는 전자 회의 안건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간다.

그 다음 간사는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여러 가지 기피사유 중 특히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회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안건의 보고자와 입안관련자들이 입장한다. 간사는 주요 입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보완 보고는 건축사사무소나 도시계획용역사 간

부직원이 10~20분 정도 발표한다. 보고가 끝나면 행정담당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난 후에 위원들의 질문이 시작된다. 지역사회의 학연·지연을 통해서 심의위원들과 보고자는 대부분 안면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질의·응답과정에서 위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무시하는 듯한 지적 등으로 사업시행자나 보고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석하고 있는 위원들도 심하다는 평이지만, 보고자는 심의 결과를 좋게 받으려니 참을 수밖에 없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사업신청지 인근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즉, 국토부의 운영지침에 관련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하고 있으나 심의위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안건을 지연·부결시키려고 한다. 또한 신청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다반사다.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관록이 붙은 위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서 다른 위원들 영역까지 침범해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정된 안건을 부결시켜야 업체가 나를 찾아온다' 등 위원의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도 보고된다.



노경수 교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답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장은 입안관련자들은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 내부 토론을 통해 심의신청도서와 답변의 충실 정도에 따라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수용, 부결 등 다섯 가지 결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과정은 위원 간 이견을 조정하면서 만장일치로 이끌어 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심의는 세 번까지 한정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입안자(사업시행자)가 재입장하면 위원장은 결정된 심의결과를 알려주면서, 입안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청취한다. 용역수행 업체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재심의, 부결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사업시행자의 욕심에 비롯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용역내용 부실이라면 사업주와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규제를 받는 입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능력(비례·평등의 원칙)을 갖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심의 결과와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다.

침하는 '특례구역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간이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Zone)을 민간이 제안하면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Bottom-up으로 유연하게 변경을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건축사의 창의력이 건축물에 감하지 않고 도시개발로 영역이 확장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재욱 광주광역시 친수공간과장

알기쉬운 도시계획법 특강

현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의 용도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분리하였고, 상업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공장지역도 구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사회·인구구조 변화가 되고 있어 현행 도시계획체계로는 디지털 전환 등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공간전략도 새롭게 개편하여야 할 시점이다.

지식노동 중심의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문명개척자들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져 정보교한·인재 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는 고밀·복합형 개발로 도시 내에서 이동 시간을 줄이고,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로 도시계획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민간의 혁신성·창의성을 활용하는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를 하여 최근에 국토계획법 개정에 관한 의견조치를 하였다.

다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간 수요를 뒷받

사랑에서 _ 일백두 번째

적정 건축설계기간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건축주의 의도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설계자의 생각을 설계도서로 표현하는 건축설계과정, 그 다음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시공과정이다. 이 두 과정은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설계과정보다는 시공과정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되어있는 것이 보편적인 듯하다. 어느 곳에 울타리가 쳐지고 건설노동자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건설기계장비 등의 소음과 함께 건축물의 형태가 갖추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건축과정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을 대지에 직접 시공하기 전 준비과정인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을 겪어본 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준비과정이 부실한데 어찌 결과물이 좋을 수 있겠는가?

과거 산업화시대의 발리발리 지어대는 물량공급 위주의 건축정책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속출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지금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원하게 되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준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의 건축물 시공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많이 늘어났게 되었다. 간단한 공사 공정표에 의해 공사기간이 정해져 그에 따른 잦은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며 정해진 시간 내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분쟁 또한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한 내용으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진다. 이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해보면 과거 공사기간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공사원가율에서 간접노무비의 비율 또한 증대되어 공사비 또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있는 공사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설계기간은 어떠한가? 건축설계 또한 건축시공과 마찬가지로 설계과정 중 검토하고 행거야할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져서 실제 설계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설계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과정에 설계기간을 검토하게 되어있으나 업무매뉴얼을 보게되면 면적당 최소 설계기간과 보정요인 내용이 적혀 있을 뿐 각각의 보정요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물론 도시계획변경, 각종영향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특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요기간을 조사하여 설계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설계계약 이후 설계과정을 들여다보면 먼저 기본계획안의 확정 필요하고 그에 따른 중간 설계 실시계획과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간설계를 전후해서 각종 심의, 영향평가 및 인증 등의 과정이 진행되고 그와 병행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게 되는데 심의, 영향평가 및 인증 등에 따른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게 되다 보면 정해진 설계기간 내에 설계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절차 진행지연을 이유로 설계 일시정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일시 정지기간에도 지속적인 협의와 설계업무는 진행되게 된다. 정해진 설계기간 내에 설계를 마무리 하지 못해 당해야 하는 행정재제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건축사사무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 기간에도 일을 진행해야 하고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용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달갑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설계비에 인증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인증 기간에 대한 고려라기 보단 단순 비율로 산정되어 있어 일시정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건축사사무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심의, 영향평가, 인증 등의 소요기간을 반영한 적정설계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늘어난 기간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 대한 설계기간 및 설계비 등의 보정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강동영 건축사 (자문위원, archikang@naver.com)



BS New, Different, Better

GeoCon (방재신기술)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침하저반보강/복원 주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208번길 43-22, 와이머스파크 A동 1114호(오송동)
EcoSM 자반개발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마이크로파일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페이로조공법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로타리파일(헬리컬) www.bs-base.co.kr
강관압입파일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선희 변호사 조선희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전드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전드리더' 위원
- 광주YMCA 시민권익보호인단 단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영로 107, 402호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장인재, 한행민, 박진만 건축문화사랑
편집인 임태형 2009년 11월 10일 창간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허민수
자문위원 박종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편집국장 이윤규
논설위원 이소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준수,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석, 임우현
편집위원 윤미소, 양창근, 최정미, 이원규, 정영진, 설해선, 오소현, 임용훈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행물 2010-01-25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본 X**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자재 KIRA 2022.6 ~ 2025.5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제|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2022.2.11)에 맞춰 개발한 심재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 0.039W/mk 나등급

심재 준불연 DK보드 검색

DK |주|대|광|판|널 |주|디|제|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



(주)신화기술

건축인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 계획 업무일체

공동주택 및 택지사업에 따른 인허가 용역 업무일체

문의전화 : 061-334-8836

순천시 종합 교통·정보제어센터

정집본 건축사 / 더존 건축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생포로 68, 301호
Tel. 061-692-3390



대지면적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61-7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859.80㎡ / 건축면적 : 576.91㎡
연면적 : 1,574.34㎡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접합강판, 라임스톤, 압출성형시멘트판



종합 교통·정보제어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아름다운 건축디자인으로 순천시 도시경관의 향상을 창출함으로써 문화·생태 도시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3가지의 디자인 요소로 계획되었다.
첫째, '완만한 S자곡선'은 순천의 영자 S와 순천만을 상징한다.
둘째, '주출입구를 둘러싼 원형 캐노피'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씨앗을 형상화한 것이다.
셋째, '부출입구 상부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점점 커져가는 나무'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린 나무가 되고 점점 커져가는 나무를 표현하여 날로 발전해 나가는 순천을 상징하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나타내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본 건축물과 기존 시청사 사이에 공중도로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연결하였다.

“한국 풍수경관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원풍경”

순천대 건축학부 사토 세이지 교수 초청 강연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6월 1일 사토 세이지 일본 오이타대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대 합동강의실에서 열린 강연회는 시민을 비롯한 건축학부 교수,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일본인 건축학자가 말하는 한국의 풍수경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초청 강연회는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해외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일본인으로 30년 동안 한국 풍수지리 사상을 연구한 사토 세이지 교수는 이날 “한국의 마을과 건축에서 만난 풍수경관”을 주제로, 한국의 농산어촌을 오가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PPT 자료 70여 장을 소개하며 열었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일본 오이타대학 사토 세이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시민, 학생 등이 참석해 일본인 건축학자가 말하는 한국의 풍수경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통역 및 사진 : 순천대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사토 교수는 지난 2002년 강원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우연히 대동여지도 전도를 관람한 것과, 2004년 88(광주대구)고속도로 주변에 펼쳐진 마을과 산야의 독특한 조화를 목격한 것이 계기가 돼 본격적으로 풍수경관을 연구하게 됐다고 말문을 꺼냈다. 사토 교수는 한국의 농촌과 산촌에서 지형과 생활공간 간의 친화성을 발견했는데, 이는 일본에 없는 특징들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것이 경관적 요소가 돼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안락함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바탕에는 바로 풍수사상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토 교수는 1861년 김정호가 완성한 대동여지도에 주목했다.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는 기가 흐르는 용맥이고, 그 끝자리에 조성된 마을은 기가 맺힌 곳이며, 주변의 강은 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토 교수는 “아마도 대

동여지도는 풍수사상에 입각해서 혹은 그것을 의식해서 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토 교수는 풍수를 연구하면서 의미 있는 네 개의 키워드를 도출했다. 나무, 정자, 비보, 조망점 등이 그것이다. 나무는 기가 맺히고 마음이 쉬는 곳으로 마을 입구나 중앙에 중요한 경관적 요소로 자리한다. 정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 나무와 함께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비보는 부족한 풍수 요소를 보완하는 방책이다. 강릉 선교장은 후면의 낮은 언덕에 담장을 쌓고 나무를 심어 기가 모이게 하고, 전면에 연못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함으로써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대표적인 비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조망점은 풍수경관

을 바라보는 장소를 뜻한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에 만들어진다. 사토 교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와 도전리를 인상에 남는 곳으로 뽑았다. 사토 교수는 “이 지역들은 산과 마을과 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풍경이 매우 아름다우며 이상적인 풍수경관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풍수경관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원풍경”이라고 강조하는 사토 교수는 “건축 설계를 할 때 풍수경관을 망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풍경이나 경관속에 건축물이 잘 녹아들어가는 작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축 관계자와 건축학도들에게 당부했다.

여수시-여수지역건축사회 간담회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관련 공무원과 지역사회 건축사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방

안 모색을 중점으로 건축관련 업무 협조사항 및 법 개정사항 안내, 건축사회의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변형우 여수지역건축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건축사들이 느꼈던 불편사항에 대해 여수시와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여수시가 고

민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건축과장은 “간담회에서 제안·건의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사협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공공건축관계자 역량 한단계 업그레이드

전남도 간담회 갖고 정책 변화 등 공유

전남지역 공공건축 관계자들이 공공건축제도 및 정책 변화 동향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6일 전남도립대 아트홀에서 2023 공공기관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군관계자, 지역 건축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축 제도 이해와 함께 공공 건축 동향에 대한 공유 시간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도립대학에서 전남지역 공공기관 건축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전남건축사회 제공

실무교육에서는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공공건축, 공(共)을 넓히는 건축’,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양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이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설계공

모 운영지침,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등을 강의했다. 김광현 명예교수는 “공공건축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 남원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국토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 대거 협력 타운하우스 등 주거 문화 인프라 구성

담양과 남원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활력타운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대거 협력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로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담양 지역활력타운은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 26만㎡ 규모로 조성된다. 민관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원, 지방비 30억원, 민자 1140억 등 총사업비 1267억원이 투입된다.

귀농, 귀촌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500세대 주거단지과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노인 복지시설, 주민 동아리실, 공동식당이 포함돼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에 들어설 지역활력타운은 운봉읍 지리산 자락 해발 600m에 위치한 지리산 허브밸리 산업특구를 활용해 약 1만평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20억원이다. 타운하우스 36호, 단독주택 32호, 타이니하우스 10호 등 총 78호를 조성해 분양 및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에는 실내체육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 텃밭, 공유 마당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4년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모든 시설을 준공하고, 같은해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양교육에서 건축공간연구원 조시은, 김꽃송이 부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도의 이해’, ‘설계공모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공공건축의 사례와 특징, 공공건축의 가치와 의미 등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건축 제도 및 건축기획 도입, 사전 검토 설계공모 대상 확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등의 정책 변화 동향을 공유해 발주 담당자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건축은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라며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높여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의 품격 향상과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2020년부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정해 자문을 하고 있다.

전남 회원동정

- **전입**
 - 최대욱 건축사 / 매퍼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곡성군 옥곡면 리문5길 15, 105호
- **변경(소제지)**
 - 이완희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 전남 순천시 대석길 17, 2층
- **부고**
 - 김용균 건축사 / 유로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3년 5월 16일(화)
 - 김태석 건축사 / 동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3년 5월 23일(화)
 - 최재용 건축사 / 포스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3년 5월 26일(일)

알_에디션(R_EDITION)

허만수 건축사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로41번길 35, 1층
Tel. 062-573-3001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443 의 2필지 / 대지면적 : 2,086㎡ / 건축면적 : 298.61㎡ / 연면적 : 298.61㎡ / 건폐율 : 14.31%
용적률 : 14.31%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알_에디션(R_EDITION)은 가로로 길게 펼쳐진 붉은 벽돌 박공 건물이다. 물이 동선을 유도하고, 빛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를 알려준다. 나무는 멈춰 머무르길 제안한다. 건축물의 내·외부는 곳곳의 문으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 건물을 따라 한없이 돌아 보면, 지루할 틈 없는 건축 산책로가 펼쳐진다.

올해 광주건축·도시문화제 9월 12일 ACC서 팡파르

2주간 광주건축상 수상작 전시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전남건축학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그동안 광주시청에서 행사와 전시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 업그레이드와 함께 광주건축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9일 이사회를 열고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정과 운영위원 구

성을 완료했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오는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기념식과 함께 2주 동안 열리게 된다. 또한 이번 문화제는 온라인으로도 병행 추진돼 시공간을 초월해 광주건축과 도시건축문화를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 및 체험활동, 심포지엄 등이 마련된다. 특히 12일 개막식에서는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 시상식이 마련된다.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그동안 불박이로 열렸던 광주시청이 아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

행되는 장소 변화가 가장 눈길을 끈다. 앞서 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4월에 도시 및 건축문화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다. 이에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문화복합시설에서 열리면서 광주 건축에 대한 위상 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건축사회는 최근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하이라이트인 광주건축상을 선정, 전시하기 위해 광주건축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21까지 작품을 접수, 8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광주건축상 받은 우수 건축물 탐방합니다

6월부터 매달 지난해 수상작 대상 진행
6월 24일 전일빌딩 245서 투어 시작

건축은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삶의 터전이자 일터이고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의 역할은 건축물의 몫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건축물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광주의 표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광주시 건축상은 광주시의 우수 건축물을 발굴해 설계자와 뛰어난 건축 공법 등을 알리는 광주시의 건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2022년 광주시건축상을 수상한 우수 건축물을 탐방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오는 6월 24일 전일빌딩 245를 시작으로 매달 2022 광주건축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건축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투어는 도슨트 설명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이동희 순천대 건축학부 교수의 토크쇼 등이 예정돼 있다. 광주우수건축물 투어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건축사, 회원 건축사 사무소 직원, 시민 등 30명이다. 탐방은 도슨트 설명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설명과 관련 학과 교수 등의 대담으로 이뤄진다. 올해 우수건축물 탐방의 문을 열 전일빌딩 245는 지난해 광주건축상 리모델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일빌딩 245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소재한 빌딩이다. 지난 1968년 건립된 전일빌딩은 그동안 몇차례 증개축을 거쳐 지난 2019년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와 불가리를 안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광주건축상은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주



사회공공부문 최우수상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민간부문 최우수상 '남선교회'



주거부문 최우수상 '지산돌집'



리모델링부문 최우수상 '전일빌딩 245'

거부문, 리모델링부문 등 4개 부문별 작품을 선정한다. 탐방 대상이 될 2022년 광주건축상에는 ▲사회공공부문 최우수상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설계 : ㈜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이현조 건축사), 우수작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설계 : ㈜로온 건축사사무소 정영범 건축사) ▲주거부문 최우수상 '지산돌집'(설계 : ㈜건축사사무소 플랜 임태형 건축사), 우수작 '아래아코메(16개의 마당)'(공동설계 : 건축사사무소 위가 이봉주 건축사, 아름지 건축사사무소 김기한 건축사), 우수작 '여행자의 ZIP'(설계 : KIN 건축사사무소 홍기인 건축사)이 선정됐다.

사사무소 김태욱 건축사) ▲민간부문 최우수작 '남선교회'(설계 : ㈜지이에이 건축사사무소 박화수 건축사), 우수작 'YANGLIMAVENUE'(공동설계 : 건축사사무소 위가 이봉주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공우 김성우 건축사) ▲리모델링부문 최우수작 '전일빌딩 245'(공동설계 : 주식회사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정림건축 건축사사무소 김기한 건축사), 우수작 '여행자의 ZIP'(설계 : KIN 건축사사무소 홍기인 건축사)이 선정됐다.

광주건축사회-5개구청 간담회

북구, 서구, 남구 마치고 8월 동구 예정

광주건축사회가 광주지역 5개구청과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건축사회는 올해 5개구건축사협의회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구청과의 주요 현안 업무 이해와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광주 북구청을 시작으로 5개구청과 광주건축사회 간 간담회를 갖는 일정이다. 북구청 간담회에는 정인재 광주건축사회장, 박재홍 한명석 부회장, 김선영 부이사장, 정상채 북구협의회장, 김경진 북구청 주택과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등이 참석해 시민 주택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공인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사 역할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건축허가 단축,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을 논의했다. 서구청과의 간담회는 6월 8일 마련돼 정인재 회장, 박재홍 한명석 부회장, 강형



광주건축사회는 북구청 건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건축행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선 서구협의회장, 정상채 북구협의회장, 유재혁 건축과장 등이 참석, 건축 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남구와의 간담회도 6월 22일 완료했고, 광산구와는 7월 5일, 동구청과의 간담회는 오는 8월 16일 예정돼있다.

주석중 전 전남대 명예교수 별세



주석중 전 전남대 건축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별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1951년 광양 출신인 고 주석중 명예교수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1983년 3월부터 2016년 8월 정년

퇴임 때까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로서 33년 동안 건축 도시 계획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고인은 광주전남건축학회 회장,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과 광주광역시 건축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삶을 살아왔다. 고인은 지난 15일 유족, 제자, 건축관계자들의 슬픔 속에서 망월 묘지에 안장됐다.

광주시, 도시재생·지역공동체 형성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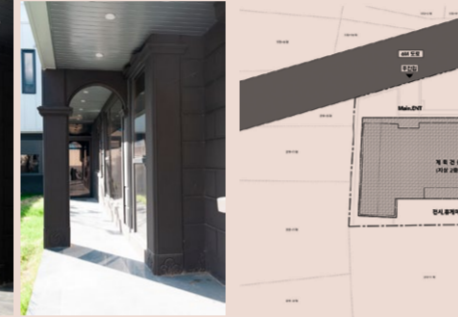
광주시는 지난 6월 8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발전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공유, 구도심의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학계·도시재생 분야 전문가·각 자치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공무원·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귀곤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발전학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동구 재생사업의 사례와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향한 길을 모색, 지역공동체의 발전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의 지향점은 필요와 수요에 대한 단계적 대응도 실행해야 하지만 지속가능한 삶의 열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지향점"이라며 "도시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의 혁신, 도시재생의 근본적 지향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한 사례에 대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플러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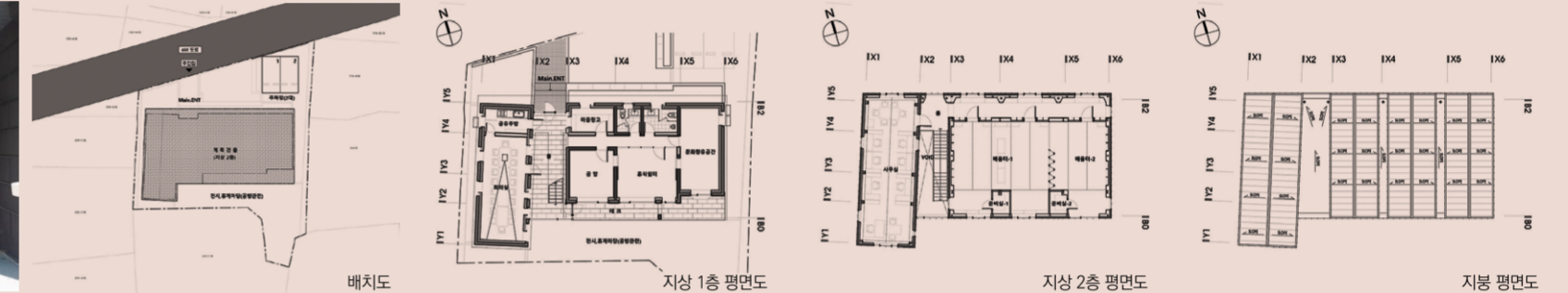
조은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JCN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2, 401호 / Tel. 063-283-0979



대지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17-2, 173-17 / 대지면적: 384.7㎡ / 건축면적: 216.53㎡ / 연면적: 374.71㎡
규모: 지상 2층 / 주용도: 1층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 구조: 벽돌구조+철골구조 / 주요 마감: 징크판넬+T24 로이복층유리



본 건물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예술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마을에서 자치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자 전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기존의 2층인 조적조 주택과 단층인 상업시설을 적절히 조합 후 기존 2층을 철거하여 그 위에 2층을 증축함으로써 단일건물로 조성하여 기존 예술마을주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유의 공간(CO-NEST), 자생적 커뮤니티를 위해 공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의 공간(CO-ACT), 주민들의 문화, 교육, 여가, 만남, 이벤트 등을 위해 조성된 감성의 공간(CO-SENSE)을 연출하고자 했다.



백제 고도 역사성과 편의성, 도시계획에 담는다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청회 개최

향후 익산시 도시디자인이 '빛나는 역사, 함께 누리는 일상'이라는 비전으로 추진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수립된 경관 계획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향후 5년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담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차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안은 백제 고도 이미지를 통해 교통, 식품, 보석 등 다양한 도시 정체성을 수용하며 도시 경관의 미래상을 밀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세부 관리계획수립, 경관, 경관 가이드라인 정비 등 도시 여건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빛나는 역사, 쾌적한 생활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소통하는 지속도시라는 컨셉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익산시가 지난달 개최한 경관계획 재정비 등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익산시 제공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시는 2018년에 수립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18-2022)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청회 자료는 시홈페이지(도시개발과 소식란)에 게재돼 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제26회 남원 전국 옷칠목공예 수상작
박미란씨 대상 등 37점...전북도청 전시

제26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품 전시가 열린다. 남원시는 지난 5월 26일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의장, 이용호 국회의원, 박중국 국가무형문화재 기능협회 이사장, 이정두 남원목공예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국 옷칠목공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무총리상인 대상에는 박미란씨의 '십장생문 나전 장식장'을, 문화체육부장관상인 금상에는 정기환씨의 '고려 당초문 찻잔세트', 송지수씨의 '꽃을 꿈꾸다'를 비롯해 총 37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문화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 남원 옷칠 목공예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남원시 전국 옷칠목공예대전에서 선보여진 전통과 파격은 새로운 사조가 되어 고고하게 시대를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북대 마닐라 코리아타운에도 K-TOWN 건립 추진

Ayala 몰 한국정원 준공식 갖고
한국교민회와 프로젝트 협약식

전북대학교가 필리핀 마닐라 중심부에 이어 마닐라 코리아타운에도 한옥을 중심으로 K-TOWN 건립에 나선다. 전북대는 지난 4월 마닐라의 Ayala 몰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필리핀 관계자, 한국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베트남, 말레이에 이어 한옥을 중심으로 K-TOWN을 완공했다. 전북대 한옥사업단(단장 남해경)이 다양하게 참여한 이번 준공식을 가진 Ayala 몰 K-TOWN은 지난 해 7월 전북대와 Ayala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9개월만이다. K-TOWN에는 한옥 정자, 담장, 처마, 대문 등이 조성됐다. 특히 K-TOWN 전면에는 일본의 J-TOWN이 있어 한일 전통 정원을 비교할 수 있어 사업단에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공사에 임했다. K-TOWN 시공 설계는 전북대 설계전문인력과정, 시공은 전북대 교수진과 졸업생 주축으로 창업한 한옥연사업단, 현



전북대가 필리핀 마닐라 Ayala 몰에 한국정원을 건립했다. 준공식에서 열린 공연 장면. 전북대 제공

지 제작에는 재학생과 훈련생이 참여해 산학협력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전북대학교는 Ayala 몰 준공식 기간에 필리핀 코리아타운협회와 MOU를 맺고 마닐라 코리아타운에 K-TOWN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하여 김종필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장, 김기동 국제협력위원장 등이 양국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코리아 타운에 한옥으로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건축하고 그 주변을 한옥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한옥학과 개설

전북대 정규과정 한옥학과 개설
2024년부터 20명...교차캠퍼스 운영

전북대학교가 2024년부터 정규학과인 한옥학과를 개설, 운영한다. 전북대에 따르면 정원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교차캠퍼스에 한옥학과를 2024학년도부터 개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한옥학과는 정원 20명이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교육을 받게 된다.

전북대는 그동안 산업체에 재직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계약학과인 한옥건축학과를 운영해왔다. 계약학과는 지역적인 제한과 자격조건 등이 까다로워 이번에 정규학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학과 설립을 주도해

온 남해경 교수는 "이번 한옥학과 개설을 계기로 우리나라 유일이자 세계 유일인 한옥학과를 세계적인 한옥 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한옥의 바우하우스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 회원동성

• 임회를 환영합니다

- 강민성 건축사
신성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15, 403
- 주규남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온
전북 군산시 미장안9길 14, 2층 202호

• 변경(소재지)

- 박중수 건축사 / 테마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88-5
- 송승희 건축사 / 백송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1길 29-1
- 전희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담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15, 403호
- 강창조 건축사 / 가산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마곡로 110-14, 201호

• 부고

- 김성규 건축사(고창지역건축사회 회장) 별세 / 나우 건축사사무소 - 2023년 5월 12일(금)
- 김윤형 건축사 / 디딤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3년 5월 16일(화)
- 김경태 건축사(익산지역건축사회 회장) 별세 / 엠.에스 건축사사무소 - 2023년 5월 29일(월)
- 김병술 건축사 / 토가 건축사사무소 장모상 - 2023년 6월 3일(토)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빌딩신탁
삼성 자이언트파크 신축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원가절감
내화기둥을 원소재인 콘크리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시기간 단축
구조기술사별 기술인력 100% 투입(타사 대비 2배 이상)

사랑&시선 _ 다섯 번째

건축사, 모자람도 넘치지도 않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는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이다. 무사 안일주의 행정과 관련자들의 결여된 책임 의식과 얽히고 설킨 비리 커넥션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깎아 문게 버렸다.

2년 전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단지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도로 위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친 그 사고는 국민들을 충격속으로 몰아넣었다. 열여덟 고등학생,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엄마를 만나러 가던 막내딸, 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던 어머니 등이 버스안에서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은 참극이었다. 검경 수사결과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철거 공사가 원인이었다. 하청업체 책임자, 감리 등 3명만이 실형을 받았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4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회적 충격파가 컸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법과 현실의 괴리감 앞에서 무력감을 갖게 했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최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국회의원, 정치인 등이 붕괴 현장을 찾아 "안전한 광주"를 외쳤다. 그들의 사자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학동 참사는 건축사들에게 깊은 내상을 주었다. 건축물의 탄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업역의 전문가였음에도 철거 현장의 불성실한 감리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급기야 민선 7기 광주시의 건축물 해체 대책 지침에서 해체계획서 작성과 심의에 건축사는 배척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개인적으로 현직에 있을 때 건축사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전체 건축사를 대상으로 싸잡아 확대하고 백안시하는 태도와 관련해 광주시를 강도높게 질타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광주건축사회가 열심히 관계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어색한 상황만 연출돼 안타깝다.

학동 참사 2주기를 맞으면서 새삼 건축사의 영역이 강조된다. 우선 건축사의 공적인 역할에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업무대행이다. 1995년

부터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을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로 대행함으로써 사용 검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엄격한 건축관련 규제 법령을 피하기 위한 불법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적 업무수행자로서 최대 덕목인 객관성과 공정성은 중요하다.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건축사 간 규정을 놓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한다. 업무대행을 하는 같은 건축사들이 "너무 뻑뻑하다"는 불멘소리도 들린다. 연고지인 광역 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규정을 들이대는 체감도가 훨씬 세다는 무념도 나온다. 사회 관계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고뇌의 시간일 수 밖에 없다. 소일고 외양간고치기 차원에서 더 강한 마음의 철책을 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들이 공소시효가 없을 만큼 책임성을 압박하고 있다면, 공적 업무에 대해 모자람도 치우침도 없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건축사들이 평생 마음속에 품어야 할 직업 윤리로서 중용의 자세이다.

추신 :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건축문화사랑 편집국장직을 6월 30일자로 내려놓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만에 중도하차를 하는 마음 착잡합니다. 지역 언론에서 32년간 생활을 마치고, 건축사들의 창이 되겠다는 의욕으로, 시민을 위한 신문같은 잡지를 만들어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의 뜻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저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신문이 나올 때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격려해주셨고 응원 해주셨습니다. 그 격려와 응원 간직하겠습니다. 저도 건축사들이 대한민국의 전문 직업군으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데 또 하나의 서포터즈로서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용규 편집국장

한 편의 시

유월의 시간

하추가 한 시간 같고
일주일 하추가 같은 나이
주어진 하추가 너무 바빠
어둠이 온 후에야 해진 줄 알았네

세월은 나이만큼 흐른다는데
꽃이 진 다음에야
봄이 떠나간 줄 알았고
늦은 시간까지 서산에 해가 있어
여름이 온 줄 알았네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우리의 젊음도
나이가 든 다음에야
멀리 흘러갔음을 알듯이
지금 젊다고 자랑하지 마라

붉은 단풍이 되는 때에야
가을이 왔음을 알듯이
젊게만 생각했던 우리의 삶도
떠나가는 시간 속에
저절로 흘러가는구나.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엠배서더 호텔앤레지던스' 서울 용산구 / 2022년 8월 26일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 전문1종 설계업 / T.A.B 인증업체
종합 감리업 /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공사업 / 소방시설 관리업 / 톨코 전남총판 소방 내진자재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51
T. 061-333-7119, 334-7119
F. 061-333-6119

